

라틴아메리카의 ‘신’지역주의 리더십 연구: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사례를 중심으로*

강경희**

단독/제주대학교

Kang, Kyeong-Hee (2012) “Regional Leaderships in Latin American ‘New’ Regionalism: The Case of Venezuela and Mexico”

ABSTRACT

The leadership competition has become one of the most salient features of the Latin American ‘new’ regionalism since the 2000s. Venezuela and Mexico have actively engaged in the regionalism drive, competing against the two hegemonic powers (the USA and Brazil) in the region. As a result, various institutions have been created to deepen the different types of regional cooperation. These institutions included the Venezuelan-led 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 América (ALBA) and the Mexican-led Plan Mesoamérica besides the Unión de Naciones Suramericanas (UNASUR) driven by the Brazilian regional leadership. Latin American ‘new’ regionalism includes leadership competition among the two middle powers (Venezuela and Mexico) and the one major power (Brazil).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make a modest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Latin American ‘new’ regionalism by explain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Venezuela and Mexico in the current leadership of ‘new’ regionalism. In conclusion, the expansion of American hegemonic leadership to the south in the 1990s was the primary force behind the Brazilian-led Latin American regionalism. The leadership competition among the major powers in the region created a leadership vacuum to be filled by a middle or small power. The president’s strong will and top-down decision-making are common points between Venezuela and Mexico in the regionalism leadership. Contrary to the Mexican case, Venezuela has consistently opposed the USA-led Free Trade Area Agreement of the Americas (FTAA) and has been strategically linked with Brazil in regionalism matters.

* 이 논문은 200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8-332-B00283).

** Kyeong-Hee Kang is associate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at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Email: khkang625@hanmail.net).

Key Words: Latin American Regionalism, new regionalism, regional leadership, Venezuela, Mexico / 라틴아메리카 지역주의, 신지역주의, 지역주의 리더십, 베네수엘라, 멕시코

서론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미주대륙 33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Comunidad de Estados Latinoamericanos y Caribeños)가 2010년 2월 창설되었다. 이 공동체는 미국 주도의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를 견제하는 동시에 대륙의 제반문제를 미국, 캐나다의 간섭 없이 쿠바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논의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Ameliach 2012). CELAC의 창설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라틴아메리카 ‘세 번째 지역주의 물결’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CELAC는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추진해 온 다양한 소지역주의 운동을 포괄하여 범 대륙적 정치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특히, CELAC는 1990년대 미국 주도의 지역주의 운동보다 2000년대 이후 미국을 배제한 라틴아메리카의 ‘신’지역주의 운동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라틴아메리카의 ‘신’지역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다. 첫째,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역역대(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가 2005년 이후 추진력을 상실하며 미주간지역주의(Interamericanismo)가 퇴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브라질 주도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은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ECLA: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²⁾의 ‘개방적 지역주의’(Regionalismo abierto) 모델을 넘어 2000년 이후 남미국가공동체(CSN: Comunidad Sudamericana de Naciones), 남미국가연합(UNASUR: Unión de Naciones Suramericanas) 등 새로운 지역주의 모델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

1)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주의는 19세기 초 이후의 첫 번째 물결, 1960년 이후의 두 번째 물결, 1990년대 이후의 세 번째 물결로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본 논문의 본론 부분에서 진행될 것이다.

2) ECLA의 스페인어 약자는 CEPAL(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이다. ECLA는 1984년 카리브국가들을 위원회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ECLAC(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로 개칭되었다.

(Latinoamericanismo)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베네수엘라와 멕시코가 200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를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갖춰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베네수엘라는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 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 América)을 이끌며 브라질의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와 경쟁하고 있고, 멕시코도 신자유주의 성격의 메소아메리카계획(Proyecto Mesoamérica)을 이끌며 지역주의 리더십 경쟁에 나서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멕시코는 1990년대 미국과 브라질 주도의 '패권적 지역주의'³⁾에 대해 편승전략으로 적응해오다가 2000년 이후 들어 지역주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두 국가는 확대된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라 할 수 있는 CELAC 창설에 있어서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베네수엘라는 역내 다른 국가들과 이념적 지향을 달리하는 ALBA 회원국들의 CELAC 가입을 이끌어내었다. 미국 주도의 미주간지역주의와 밀착해있던 멕시코의 CELAC 가입은 이 공동체가 형식적 완결성을 갖춘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로 나아가는 데 기여했다(Méndez 2012).⁴⁾ 그렇다면 베네수엘라와 멕시코가 지역주의 리더십을 추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그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인가? 양국의 지역주의 리더십은 200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주의 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주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미국 주도의 미주간지역주의(NAFTA, FTAA)와, 브라질이 ECLA의 '개방적 지역주의' 구상에 따라 추진한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MERCOSUR)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⁵⁾ 또한 2000년 이후 베네수엘라와 멕시코가 추진하는 지역주의에 관한 연구들은 개별국가 차원의 특정 쟁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⁶⁾ 본 논문의 관심은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적, 소지역적 수준에서 나타나

3) '패권적 지역주의'는 탈냉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적 헤게모니가 약화됨에 따라 각 지역의 패권국들이 지역적 패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추진된 하위제국주의(Subimperialism) 성격의 지역주의를 말한다(Briceno 2006, 29).

4) 아르헨티나의 정치학자 Boron(2011)은 멕시코가 CELAC에 가입하게 된 주된 이유로 2008년 미국 발 외환위기 이후 촉발된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를 들고 있다.

5) 미주간지역주의와 관련된 국내연구로는 서경태(2000), 이내영(2004), 문남권(2004) 등이 있고, 브라질 주도의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 관련 연구로는 광재성(2000; 2001), 손혜현(2010), 조희문(2010) 등이 있다. 정인교·권기수(2001)는 미주간지역주의 추진에 있어서 미국과 MERCOSUR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6) 베네수엘라와 멕시코가 추진한 지역주의에 관해서는 에너지외교 및 에너지통합에 초점을 맞추는 김기현(2008), 하상섭(2012) 등의 국내연구가 있다.

는 다양한 지역주의들의 출현을 ‘지역주의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찰하는 데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신’지역주의가 하나의 지역주의가 아니라 여러 유형의 지역주의 ‘들’이라는 관점은 Gürcan(2010)과 Grugel(2009)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Gürcan은 안정성, 패권, 엘리트주의, 경제통합, 안보 등을 강조하는 서구 중심의 지역주의와 달리, 라틴아메리카의 ‘신’지역주의들은 지역적 정체성 및 이념적 정체성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Grugel에 따르면, 미주대륙에는 FTAA, MERCOSUR, 기존의 미주간지역주의 등 최소한 3개의 지역주의들이 확인된다. 또한 그는 1990년대까지의 지역주의가 무역과 투자정책, 경제자유화라는 외부적 압력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점차 재분배, 인권, 민주주의, 평등, 책임성, 투명성, 참여, 복지 등의 의제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지역주의 거버넌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라틴아메리카 ‘신’지역주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0년 이후 베네수엘라와 멕시코가 주도한 지역주의 운동과 이 국가들의 지역주의 리더십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중심 주장은 1990년대 미국의 패권적 지역주의가 브라질과의 리더십 경쟁을 촉발했고, 이는 베네수엘라와 멕시코가 지역주의 리더십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또한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의 지역주의 리더십은 대통령의 강한 정치적 의지에 의존하며 하향식으로 전개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베네수엘라가 이념적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미국과 대립하고 브라질과 경쟁하는 반면 멕시코는 미국의 하위파트너 역할을 지속하며 브라질과도 온건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라틴아메리카 지역주의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과 ‘하위’ 지역패권국의 지역주의 리더십에 관한 개념적 논의들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2000년 이전에 라틴아메리카에서 진행된 세 개의 지역주의 물결을 미주간지역주의와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라는 틀 속에서 설명한 후, 최근 베네수엘라와 멕시코가 각각 주도해 온 지역주의 리더십의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신’지역주의 리더십 연구에 있어 베네수엘라, 멕시코의 사례분석이 주는 함의를 언급할 것이다.

이론적 배경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 지역주의 모델 관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지역주의 이론들은 세계 다른 지역의 유사한 현상들을 분석하는 평가기준이 되어왔다. 유럽의 지역주의 연구는 1960년대 기능주의-연방주의 논쟁을 거쳐 1970년대 신기능주의 이론이 주도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1980년대 국제관계이론의 신현실주의-신자유주의 논쟁은 지역주의 이론에서 정부간주의-초국가주의 논쟁으로 발현되었다. 1990년대 초 탈냉전과 유럽통합의 심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새로운 지역주의'에 관한 연구⁷⁾가 다각적으로 전개되었다(Farrell 2005, 7-8).

라틴아메리카 지역주의에 관한 연구들도 유럽 '모델'을 표준적인 기준으로 삼아 제도화 수준을 평가하고 통합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 경향은 주로 MERCOSUR에 관한 연구에서 자주 발견된다. Cason(2011, 3-4)에 따르면, MERCOSUR는 회원국들의 취약한 정치제도, 국가-시민사회의 후견적 관계, 높은 외국자본 의존도, 연방주의 이념의 결핍, 제도적 갈등해소 메커니즘의 결여 등의 요인들 때문에 EU보다 '취약한 통합' 또는 '좌절된 통합'이 될 것이다. MERCOSUR와 EU의 상이한 발전 속도를 연구한 Klein(2000, 37)은 MERCOSUR가 1995년 이후 불완전한 자유무역지대와 불완전한 관세동맹 단계를 동시에 밟은 '압축적 이행단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⁸⁾

이와 같은 유럽모델의 일반화 경향은 세계 속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지정학적 간극이나 국가형태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적 민감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Farrell(2005, 2, 10)은 세계에는 다양한 지역주의 모델이 존재하지만 모든 국가나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지배적 패러다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비교지역주의 방법보다는 각 지역의 역사적 맥락과 특수한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들을 고려한 사례분석의 방법을 통해 지역주의에 관한 효과적인 이론이 구축될 수 있다고 본다(Farrell 2005, 10). Mittelman은 '새로운 지역주의' 연구에서 유럽 중심적 편향성을 경고하면서 비유럽권 지역주의는 세계화를 종착지로 하는 신자유주의 지역주의

7) '새로운 지역주의'에 관한 연구는 신현실주의, 포스모더니즘, 구성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패러다임 속에서 전개되었다.

8) 발라사(B. Balassa)는 지역의 경제통합이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이라는 5단계로 전개된다고 주장한다.

(Neoliberal regionalism)가 아니라 ‘변혁적 지역주의’(Transformative regionalism)의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Hettne, Inotai and Sunkel 1999). 유럽모델의 일반화에 대한 이러한 비판들을 종합하면, 지역주의 연구는 유럽모델의 무비판적 적용보다는 지역의 역사적 맥락과 정치, 경제적 고유성을 반영한 사례연구가 선행된 후 유럽 사례와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단일한 경향의 지역주의가 전개된 유럽과는 달리,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지난 200여 년 간 다양한 유형의 정치·경제적 지역주의들이 출현했다. 이와 관련해 Malamud(2005, 1-2)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주의의 문제점으로 레토릭의 과잉과 과도한 민족주의, 그리고 지역적 리더십의 부재를 들었다. 실제로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주의 구상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과잉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추진 주체와 목적에 따라 단순화해보면 최소한 세 개의 지역주의 유형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발견된다.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Latinoamericanismo)는 19세기 초 통합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 외세의 간섭 없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만의 지역통합을 추구하는 것이고, 미주간지역주의(Interamericanismo)·범미주지역주의(Panamericanismo)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관리’를 목적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지역주의 경향이며, 히스패닉아메리카지역주의(Hispanoamericanismo)·이베로아메리카지역주의(Iberamericanismo)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과거 400여 년의 지배적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추진하는 지역주의 운동이다(Rosas 1996, 84).⁹⁾ 본 논문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주의의 전개과정과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와 ‘미주간지역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지역주의 리더십에 관한 개념적 논의

지역화(Region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 개념의 일반적 분류법은 역내 경제교류 증대에 관심을 두는가, 아니면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국가 간 정치협력 증대에 관심을 두는가에 있다(Song 2006, 319). 지역화가 “기업이나 비정부 주체에 의해 주도되고, 아래로부터의 노력에 의해 진행되며, 시장

9) 이베로아메리카지역주의는 1991년 이베로아메리카 국가들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후 구체화되었다. 스페인 국왕의 지원 아래 스페인, 포르투갈, 쿠바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의 정상들은 매년 정상회담을 위해 회합한다. 현대화된 히스패닉아메리카지역주의라 불리는 이베로아메리카지역주의는 이른바 ‘두 세계의 만남’(Eccuentro de dos mundos) 500주년을 계기로 시작되었다(Rosas 1996, 85). 이 지역주의는 다른 지역주의들에 비해 파급력이 약하고 상징적 차원의 지역주의 주장에 머물고 있다고 점에서 본 논문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계약적 바탕위에 선 협력형태"라고 한다면, 지역주의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위로부터의 노력에 의해 진행되며, 제도적 협력과 협정위에 선 협력 형태”라 할 수 있다(Yim and Cho 2005, 223). 즉, 지역주의는 국가의 의식적 활동과 정책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지역건설(Region-building)을 위한 정치적 조건과 관련된 개념이다. 지역 건설의 정치적 조건이란 지역주의 질서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의 선택, 정책결정자 및 이익집단들의 지역주의에 대한 선호도, 국내 정치제도와 지역주의 제도의 적응 능력 등을 의미한다.

지역주의에 대한 정치적 분석은 국가의 활동 및 국내 정치행위자와 국내 정치제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출현하고 발전하고 쇠퇴하는 내적 메커니즘을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한 국가의 지역주의 리더십과 역내 국가들 간 리더십 경쟁에 관한 분석은 지역주의의 역동적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Kim 2012, 116). 지역주의 리더십의 경쟁에서 지역 패권국은 경쟁국의 출현을 막고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역주의 과정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려 한다. 지역 패권국의 이러한 의도가 성공을 거두어 이 국가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주의를 ‘패권적 지역주의’(Hegemonic regionalism)라고 한다(Park 2008, 238).

미주대륙의 경우, 세계 패권국이자 대륙 패권국인 동시에 북미지역 패권국인 미국이 주도하는 NAFTA와 FTAA가 패권적 지역주의의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남미지역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지역 패권국의 강한 리더십에 의해 추진되는 패권적 지역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Pizarro(2008, 32)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다양성의 인정, 국가 자주권 양도를 통한 지역 공통의 이익추구, 그리고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담당했던 지역주의 리더십을 라틴아메리카의 지역 강국들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브라질의 패권적 지역주의 리더십은 1990년대 중반 들어 미국이 FTAA 추진을 통해 남미지역으로 패권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구체화되었다. 이와 함께 남미지역에서도 브라질이 주도하는 CSN, UNASUR 등과 같은 패권적 지역주의 운동이 출현했다.¹⁰⁾

10) 미국이 유럽통합 강화를 우려해 NAFTA를 추진했다는 점과 브라질이 미국의 FTAA 추진에 반발해 CSN과 UNASUR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양국의 지역주의 리더십은 ‘대응적 지역주의’(Counter-regionalism)의 특징을 갖고 있다. 대응적 지역주의는 외부로부터의 공동된 위협이나 개별국가로는 대응하기 힘든 문제의 출현 등에 의해 역내 국가들이 지역협력 및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를 말한다(Byun 2008, 9).

이러한 패권적 지역주의에 대해 중간국(Middle power)이나 약소국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는가? 이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주로 편승전략(Band-wagoning strategy)이나 대항전략(Balancing strategy)으로 나타난다. 편승전략은 “차별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존의 지역협정에 가입하는 것”이고, 대항전략은 “지역적 차별조치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독자적 지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Moon 2006, 34). 다시 말하면, 편승전략은 중간국 또는 약소국이 지역 패권국의 피후견국이 되어 인프라 개선 및 경제발전을 모색하는 경우를 말하고, 대항전략은 지역 패권국을 제외한 역내 국가들끼리의 지역협력을 통해 ‘집단적 협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생존능력을 증대시키는 경우를 말한다(Hettne, Inotai and Sunkel 1999).¹¹⁾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저항적 민족주의의 오랜 역사를 청산하고 NAFTA 협상을 선택한 사례는 편승전략으로, 베네수엘라가 ALBA를 통해 독자적 성격의 지역기구를 설립한 사례는 대항전략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에서 ASEAN의 리더십 사례를 분석한 Kim(2012, 114-116)은 중간국 또는 약소국이 지역주의 리더십을 보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소련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공통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패권국이 지역주의를 주도할 의지나 능력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잠재적 패권 경쟁국이 등장할 경우 기존의 패권국은 역내 우세한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리더십 경쟁에 재돌입할 수 있다. 둘째, 역내 강국들이 지역주의 리더십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들의 리더십 경쟁으로 지역주의 리더십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나타난 리더십 공백을 제3의 세력이 메울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셋째, 만일 중간국이 지역 패권국과의 긴밀한 정치·군사적 동맹 및 경제적 협력관계에 있을 경우, 이 중간국은 능력의 부족과 타국의 지지 부재로 ‘독자적’ 지역주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넷째, 약소국들도 역내 지역주의 리더십 경쟁에서 나타나는 리더십 공백을 메우려는 강한 동기를 가질 수 있다. 만일 약소국들이 통일된 연합체를 결성할 수 있다면 집단적 협상력을 이용해 지역주의 형성과정

11) Samir Amin은 대항적 지역주의 전략(대항전략)이 자본주의 양극화의 심화라는 현실적 도전에 직면해 ‘주변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즉, 자본주의 세계화는 과학기술, 금융, 자연자원, 미디어, 대량학살무기 등 다섯 개의 ‘독점’을 포함하는데, 이 독점들은 주변국의 산업화 향상을 저해하므로 개별국가 차원보다 지역적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Hettne, Inotai and Sunkel 1999).

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의 패권국과 중간국들은 약소국의 지역주의 리더십을 위협적이라 여기기보다는 지역주의 형성과정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긴다. 이상의 논의는 ASEAN의 지역주의 리더십을 사례로 하지만, 북미지역의 중간국인 멕시코와 남미지역의 중간국인 베네수엘라가 2000년 이후 지역주의 리더십을 추구하게 된 조건들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리라 본다.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와 미주간지역주의의 전개

제1의 물결: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와 미주간지역주의의 출현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와 미주간지역주의의 기원은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라틴아메리카 해방운동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는 베네수엘라 출신 독립운동가 미란다(Francisco de Miranda)가 1790년 스페인 식민지 영토를 콜롬비아(Colombia)라는 단일국가로 건설하자고 제안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미주간지역주의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이 1788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미국 통제 하에 두기 위해 제안한 대미주체계(Gran Sistema Interamericano)에 기원을 둔다(González 2008, 2-3).

미란다의 제안은 19세기 초 그란 콜롬비아(Gran Colombia) 건국의 아버지 볼리바르(Simón Bolívar)를 비롯해 오이긴스(Bernardo O'Higgins), 아르티가스(José Artigas), 산 마르틴(José de San Martín), 모렐로스(José María Morelos) 등 라틴아메리카 독립운동가들의 지역통합사상에 영향을 미쳤다(Rosas 1996, 83). 한편, 1823년 미국의 먼로(James Monroe) 대통령은 해밀턴의 제안을 계승하며 '먼로독트린'을 발표했다. 이 독트린은 미주대륙에 대한 유럽의 개입을 반대하는 '아메리카인들을 위한 아메리카' 건설을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미국의 팽창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이에 볼리바르는 1826년 '파나마근린회의'에서 '라틴아메리카인들을 위한 라틴아메리카' 건설을 주장하며 미국에 대한 방어적 동맹을 강조했다(González 2008, 3). 파나마근린회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집단안보 체계 구축, 다자주의를 통한 지역동맹, 하나(또는 소수의) 지역연합기구 제도화 등을 통한 '초국가적'

정치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그란 콜롬비아, 중앙아메리카연합(Provincias Unidas del Centro de América), 페루-볼리비아연합(Confederación Perú-Boliviana)과 같은 정치연합체가 구성되었으나, 역내 국가들 간 정치적 갈등 및 내란 발발, 이에 대한 외국의 개입 등으로 실패했다. 이때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ECLA 주도의 지역통합운동이 재개될 때까지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는 큰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¹²⁾

반면, 미주간지역주의는 1889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범미주회의(Pan American Congress)를 계기로 재개되었다(Sánchez 2005, 224). 미국의 해리슨(Benjamin Harrison) 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역내 단일관세, 영토분쟁에 대한 강제조정 등의 계획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회의는 범미주연맹(Pan American Union)의 창설로 이어지는 성과를 낳았다(González 2008, 3-4).

제2의 물결: ECLA의 보호주의적 지역주의와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의 발전

라틴아메리카에서 제2의 지역주의 물결은 ECLA가 1948년 유엔의 산하기구로 설치됨에 따라 시작되었다. 당시 ECLA는 유럽의 지역주의 발전에 영감을 받아 라틴아메리카에 적합한 지역경제협력체를 구성하고자 했다(Moon 2007, 174-175). ECLA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종속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입대체산업화를 장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동시에 ECLA는 국내시장을 지향하는 수입대체산업화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시장의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주의적 지역주의를 달성해 공동시장, 규모의 경제, 생산의 다변화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Caporaso 1987, 57-58). ECLA 구상에 따라 지역 수준에서는 1960년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ALALC: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Libre Comercio),¹³⁾ 1975년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 Sistema Económico Latinoamericano), 1981년 ALALC 후신인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LADI:

12)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이 노골화되기 시작한 19세기 말-20세기 초, 시에라(Justo Sierra), 프라다(Manuel González Prada), 마르티(José Martí), 알베르디(Juan Bautista Alberdi), 인헤니에로스(José Ingenieros), 우가르테(Manuel Ugarte) 등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기구의 창설을 제안했으나, 미국 주도의 미주간지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무력화되었다.

13) 영어 약자는 LAFTA(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이다.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¹⁴⁾이 결성되었다. 또한 1960년 중미 공동시장(MCCA: Mercado Común Centroamericano)과 1969년에 안데스공동체(CAN: Comunidad Andina de Naciones),¹⁵⁾ 1973년 카리브공동체(CARICOM: Caribbean Community)가 소지역 차원에서 출현했다. 그러나 ECLA 주도의 지역경제기구들은 국제수지 불균형, 회원국들 간 협상의 복잡성,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성과가 미미했고, 더욱이 1982년 외채위기가 발생하자 지역주의라는 쟁점은 부차적 의제로 밀려났다(Cason 2011, 2). 이후 1990년대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구상이 나타날 때까지 ECLA 주도의 지역주의 운동은 퇴조의 길을 걸었다.

이에 반해 콘타도라 그룹(Grupo Contadora),¹⁶⁾ 에스키폴라스 협정(Acuordo de Esquipulas),¹⁷⁾ 리오 그룹(Grupo de Río)¹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안보적 성격의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는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 지역주의 활동의 기본 관점은 중미지역 분쟁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개입 견제와 중미지역의 평화 달성을 위해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CLA 구상이 경제적 지역주의에 한정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치·안보적 지역주의 운동은 향후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의 의제 확장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 즉,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지역주의'가 환경, 안보, 사회보장, 개인의 이주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게 되는 내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3의 물결: ECLA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미주간지역주의의 발전

1) ECLA의 '개방적 지역주의 구상'

라틴아메리카에서 제3의 지역주의 물결은 1980년대 중반 유럽통합의 심

14) 영어 약자는 LAIA(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이다.

15) CAN은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유사한 조직구성과 목적을 가지고 출현했다. ECLA는 CAN이 EEC와 유사한 헌법구조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Chumbiray 2008, 1-2).

16) 콘타도라 그룹은 1983년 중미 평화를 목적으로 멕시코,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에 의해 결성되었다.

17) 에스키폴라스 협정은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가 1986년과 1987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선언을 내용으로 지역의회 창설, 콘타도라 그룹의 중남미 평화조약 서명 등이 포함되었다.

18) 리오 그룹은 1990년 중미 평화에 대한 콘타도라 그룹 회원국들의 합의 결과 창설되었다. 현재 이 그룹의 회원국은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카리브지역, 남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화¹⁹⁾에 대한 대응적 지역주의로 시작되어 탈냉전, 세계화라는 새로운 외부 환경을 맞아 전 대륙으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 이후 ECLA가 제안한 ‘개방적 지역주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지역주의와 내용적 측면에서 상호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NAFTA와 개방적 지역주의 성격의 MERCOSUR도 내용상 유사한 특징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미주간지역주의를 남미지역으로 확산하려는 FTAA 구상이 추진되면서 미국과 브라질 간 지역주의 리더십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미지역과 남미지역의 지역주의 운동은 각각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Pizarro 2008, 30).

ECLA의 ‘개방적 지역주의’ 구상은 과거 보호주의적 지역주의에 대한 내부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²⁰⁾ Klein에 따르면, 개방적 지역주의는 자유경쟁주의와 구조적 협력주의를 수렴해 타협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²¹⁾ 이에 따라 개방적 지역주의 전략은 산업인프라 구축, 기술정책 발전, 양질의 노동력 확보 등을 통한 적극적 산업특화를 목표로 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주도적 역할 인정과 국가에 의한 낮은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제안했다(Klein 2000, 41). 개별국가가 불리한 대외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개방적 지역주의는 회원국들에 대한 신속한 개방과 선진국들에 대한 점진적 개방이라는 이중적 개방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개방적 지역주의는 수출지향 산업화 장려를 목적으로 무역자유화, 금융자유화, 경제개방, 자유무역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수용했다(Soria 2005, 19). 개방적 지역주의의 관점에

19) 1986년 유럽에서 ‘단일유럽법’이 통과되자 미국과 캐나다는 FTA 협상에 즉시 돌입했고, 같은 시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공동시장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단일유럽법의 목표는 EC 확대를 통한 유럽통합의 가속화와 1992년까지의 공동시장 완성이었다(Kim Y. 2006, 153).

20) ECLA의 수입대체산업화와 보호주의적 지역주의의 병행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첫째, 국내시장 지향의 발전모델과 인접국들과의 지역통합은 병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개별국가의 기업인, 노동자, 공직자 등이 지역통합을 저지하려는 민족주의 동맹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개방적 사회로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지역주의 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다양한 발전수준을 가진 국가들 간의 이질적 통합은 발전 동력을 한 지점으로 모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몇몇 회원국들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은 지역주의 추진에 있어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Klein 2000, 12).

21) Klein(2000, 21)은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주의 모델을 자유경쟁주의 모델(Modelo liberal-competitivist)과 구조적 협력주의적 모델(Modelo estructural-armonizacionista)로 구분하고 있다. 자유경쟁주의 모델은 경제적 요인, 시장의 역할, 경쟁을 규제하는 정책의 중요성 강조 등을 특징으로 하고, 구조적 협력주의 모델은 국가의 역할, 민간부문 활동 규제, ‘능동적인’ 국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 1991년 MERCOSUR, 1991년 중미통합체계(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1994년 카리브국가연합(AEC: Asociación de Estados del Caribe), 1995년 G-3(Grupo de los Tres: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이 창설되었다. 다른 한편, ALADI, SELA, CAN, MCCA 등도 활동을 재개했다 (González 2008, 13).

2) 미국 주도의 미주간지역주의: NAFTA에서 FTAA로의 전환 실패
북미지역은 미국의 초월적 지위, 라틴아메리카로부터 미국을 분리시키려는 대륙적 경향, 미국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저항적 민족주의 정서 등으로 인해 '하나의 지역' 건설을 위한 지역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리적 인접성에 기반을 둔 잦은 경제교류는 상대국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형성에 기여했고, 이에 따라 '북미'라는 지역적 정체성이 서서히 마련되었다 (Farrell 2005, 11). 미국 주도의 패권적 지역주의는 NAFTA와 FTAA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범미주구상'(Iniciativa para las Américas)이 1990년 제기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WTO 구성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다자주의적 방식을 유지하던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역주의 방식을 선호했다. 1994년 발효된 NAFTA는 유럽 지역주의와의 경쟁을 위해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지역주의 모델이었다. 미국과 캐나다가 FTA 협상에 들어간 지 불과 8년 만에 NAFTA가 체결되었고, NAFTA 발효와 함께 미국은 FTAA 구상을 발표하며 미주간지역주의를 향한 자국의 패권적 리더십 부활을 알렸다 (Soria 2005, 19).

FTAA 구상은 1994년 미국에서 열린 제1차 미주정상회담에서 최초로 제기 되어 2005년 12월 체결을 목표로 협상에 들어갔다. FTAA는 미주대륙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의 모든 국가들을 하나의 제도화된 지역기구로 연결하려는 미국의 대륙통합 구상이다. 이 구상은 자유무역을 포함해 투자, 토지, 서비스, 산업정책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경제협력을 다룬다. FTAA 구상의 주요 내용은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경제부문과 주요 자연자원에 대한 통제, 무역자유화, 서비스 부문(재정, 텔레커뮤니케이션, 전기에너지, 교육, 보건, 수자원, 행정 등)의 규제 완화, 투자의 규제 완화, 지적 재산권 규제 완화, 국가의 투자 축소 등이다. 이 가운데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에너지 부문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석유자원을 자국의 하위체계로 통합시키는 데 있다(Robalino).

FTAA 구상에 대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미주대륙 경제규모의 약 77%나 되지만, FTAA 구상에는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간 경제적 격차를 고려한 특별대우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구상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의 팽창을 우려한 미국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Astorga, 3). 또한 FTAA 구상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이며, 미국은 이 구상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배를 재구성할 것이라 보았다. 결국 FTAA 건설을 위한 미주국가들의 다자주의적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급진적 일방주의로 나아가자 다자주의적 외교 공간은 미국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FTAA 의제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부차적으로 취급되었다.

결국, 미국은 2000년 협상에정년도를 맞아 아르헨티나의 마르 델 플라타(Mar del Plata)에서 열린 제4차 미주정상회담에서 FTAA 협상을 완료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2006년부터는 현재까지 관련 협상은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Aravena 2009, 57-58). 이와 함께 미주간지역주의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잃었고(Gratius 2012, 7), 미국은 FTAA의 다자주의 방식 대신 양자주의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FTA 협상을 추진하며 칠레, MCCA, CAN, CARICOM 등과 개별 협상을 추진해나갔다. 양자주의로의 미국 협상방식의 변화에 대응해 MERCOSUR 회원국들은 개별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기구 차원의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Soria 2005, 19).

3) 브라질 주도의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 MERCOSUR에서 CSN, UNASUR로 진화

1990년대 초반까지 브라질의 지역주의 리더십은 미국 주도의 미주간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MERCOSUR라는 소지역기구 틀을 이용하는 등 소극적 측면이 강했다(Cason 2011, 2). ECLA가 제안한 ‘개방적 지역주의’ 모델로서 등장한 MERCOSUR는 1991년 3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회원국으로 하여 결성되었다. 개방적 지역주의 모델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라틴아메리카에서 진행된 지역주의 운동의 비현실적 측면을 배제하면서 세계시장으로의 성공적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에 따라 MERCOSUR는 주로 경제적 협력을 추구하며, 신자유주의와 구조주의의 경제 전략을 결합한 ‘실용적 협력주의’의 특징을 갖고 출발했다(Klein

2000, 9, 12). 1985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MERCOSUR의 초기 협상을 이끌었고,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가 창립 회원국에 포함된 이후 베네수엘라가 신규 회원국이 되었다. 현재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가 MERCOSUR의 준회원국이며, 멕시코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MERCOSUR는 많은 한계점이 지적되었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통합기구라는 평가를 받는다(Cason 2011, 2).²²⁾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FTAA 구상과 함께 미주간지역주의를 강화해나가자, 브라질은 남아메리카를 넘어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패권적 지역주의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브라질은 미국과 실용적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주변국들에 대한 지역주의 리더십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도는 1993년 브라질이 제안한 남미자유무역지대(ALSA: Área de libre comercio sudamericana) 구상이었다(Chumbiray 2008, 3). 다음으로 브라질은 MERCOSUR를 남미 남부지역(Cono Sur) 밖으로 확장하고자 CAN과의 통합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04년 12월 남미국가공동체(CSN: Comunidad Sudamericana de Naciones)가 창설되었다(Briceno 2006, 28). 2006년 12월 볼리비아의 코차밤바에서 개최된 제2차 정상회담에서 CSN은 경제·사회적 인프라 문제를 논의했다. 다음해 4월에는 베네수엘라가 자국의 마르가리타 섬에서 제1차 남미에너지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미에너지위원회(Consejo Energético de Suramérica) 구성을 결의했다. 이에 자극을 받아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2007년 제3차 정상회담에서 CSN은 에너지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2008년 5월 CSN 회원국들은 CARICOM 회원국들과 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미국가연합(UNASUR: Unión de Naciones Suramericanas)을 설립하였다.

UNASUR는 미국을 배제한 라틴아메리카 정치포럼이며 단일한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과 시민성 확립, 그리고 통합된 지역적 공간의 확장을 설립목적으로 한다(Aravena 2009, 16). 구체적으로 UNASUR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참여 및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남아메리카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역기구의 회원국

22) 2006년은 MERCOSUR에게 의미 있는 해로서 그해 말 메르코수르 의회(Parlamento del Mercosur)가 구성되고 시민사회정상회담(Cumbre Social)이 개최되었다. 이는 MERCOSUR 회원국들이 정부의 일방적 주도권을 포기하고 시민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지의 반영이었다. 더 나아가 MERCOSUR는 유럽지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켜 EU와의 지역간주의(Interegionalismo)를 실행에 옮겼다(Briceno 2006, 28).

은 MERCOSUR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CAN 회원국(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기아나, 수리남 등이며, 멕시코와 파나마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한다. UNASUR는 EU 수준의 제도화 달성을 위해 남미의회와 남미은행을 설립했으며 사회발전, 마약과의 전쟁, 보건·교육·문화·과학기술, 국방, 에너지, 경제, 인프라, 선거 등의 의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두고 있다. UNASUR의 활동 시기는 지역적 수준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 수준에서 브라질의 경제적 위상이 강화되는 시기와 일치한다. 브라질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사회발전계획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역내 지역주의 리더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와 멕시코 주도의 ‘신’지역주의 전개과정

베네수엘라: ALBA에서 ALBA-TCP로 심화

베네수엘라는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 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 América) 창설을 계기로 미국과 브라질의 패권적 지역주의 리더십에 도전해왔다. ALBA는 2005년 설립을 목표로 미국이 추진해 온 FTAA에 대한 대항전략으로 2001년에 제안되어 2004년 창설되었다(Hart-Landsberg 2009). ALBA라는 이름도 FTAA의 스페인어 약어인 ALCA(Área de Libre Comercio de Américas)와 대조를 이루기 위해 선택된 명칭이다. ALBA의 회원국은 베네수엘라(2004), 쿠바(2004), 볼리비아(2006), 니카라과(2007), 도미니카공화국(2008), 온두라스(2008), 에콰도르(2009),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2009), 안티구아 바부다(2009) 등 9개국이다.

ALBA는 회원국들 간 연대와 상호존중 원칙에 따라 경제협력을 넘어 정치·사회적 통합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발전 전략이자 지역주의 구상이다(Astorga, 3). 이 구상은 사상적으로 19세기 초 볼리바르의 지역통합 이념에 근거를 두어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공통성과 지역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사회 통합을 추구한다. ALBA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원국들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생존 공간을 확보하고 라틴아메리카 고유의 역사·문화적 공간도 회복하는 것이다. 초국적기업 주도로 추진되는 기존의 FTA와는 달리 ALBA는 회원국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중요한 점은 회원국 정부들이 휴머니

즘, 공존, 차이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들의 공유를 통해서만 ALBA가 새로운 제도성을 갖춘 기구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ALBA는 배타적 지역기구가 아니라 근본적 가치와 기본 원칙에 공감하는 모든 국가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지역기구라는 점도 또한 강조된다(Vielma, 1-2). ALBA의 기본 원칙은 자유주의 시장개혁에 반대하고, 경제자유화 혜택의 분배에 있어 국가의 조정자적 역할을 제한하지 않으며, 국가와 시장의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2002년 4월 반정부 쿠데타 위기(Kim K. 2003)를 넘긴 후 베네수엘라 차베스(Hugo Chávez) 정부는 본격적인 ALBA 협상에 들어갔고, 2004년 쿠바와의 합의를 거쳐 ALBA가 설립되었다. ALBA의 초기 전략은 양자주의 협상을 통해 다국적 에너지기업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2005년 ALBA는 페트로아메리카(Petroamérica)라는 에너지통합 구상을 제안하였다. 페트로아메리카 구상은 역내의 에너지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의 국영 석유회사를 하나의 다국적기업으로 통합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페트로아메리카의 하부기구로 페트로카리브(Petrocaribe), 페트로안데스(Petroandina), 페트로남아메리카(Petrosur)의 설치도 계획되었다. 같은 해 6월 베네수엘라는 13개 카리브 국가들과 다자주의 협상에 돌입해 2007년 페트로카리브 창설에 성공했다. 그러나 페트로남아메리카는 2006년 콜롬비아, 페루와 미국이 진행한 FTA 개별 협상에 반발하며 베네수엘라가 CAN에서 탈퇴한 후 다자주의보다는 양자주의의 방식으로 추진되었다(Robalino).

2006년 4월 베네수엘라, 쿠바, 베네수엘라는 협력우위 원칙에 기반을 둔 민중무역협정(Tratado de Comercio de los Pueblos)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LBA 회원국들의 무역관계는 자유무역주의가 주장하는 비교우위 및 경쟁우위를 거부하고, 대신에 취약한 회원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전제로 하는 '협력'우위 원칙을 표방했다. 협력우위에 근거한 무역의 사례로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쿠바의 서비스부문(의사와 교사)이 교환되고, 두 국가가 콩, 쌀, 가금류, 유제품의 공동경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스테인리스스틸과 니켈 생산을 위한 양국간기업을 설립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사례로는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미국-콜롬비아 FTA 협정으로 미국 수출길이 막힌 볼리비아의 콩을 수입하고, 쿠바가 볼리비아에 교육체제와 보건체제 확립을 지원하는 대신에 볼리비아는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천연가스, 광물, 농산물, 가축, 공산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도미니카공화국도 ALBA 회원국들과의 무역에 있어 협력우위 원칙의 혜택을 받고 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도미니카공화국의 국제공항 재건축, 석유저장 설비 및 정유능력 확충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쿠바는 도미니카공화국 인들에게 무료로 안과수술을 제공하며 도미니카공화국 청년들에게 쿠바의 의과대학에서 수학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에콰도르, 볼리비아,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은 ALBA 회원국들의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국적 식량생산기업을 설립했다(Hart-Landsberg 2009).

2008년 말 미국 발 경제위기가 심화되자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ALBA 회원국들과 에콰도르 정부는 미주대륙 민중을 위한 볼리바르 연대-민중 무역협정(ALBA-TCP: 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Tratado de Comercio de los Pueblos)을 체결했다. ALBA 명칭 가운데 ‘대안’(alternativa)이 ‘동맹’(alianza)으로 바뀐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FTAA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는 점, 그리고 ALBA가 FTAA의 단순한 대응수단 이상의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등과 같은 회원국들의 현실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ALBA-TCP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빈곤, 사회적 배제, 문맹률 등을 라틴아메리카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의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기구이다. ALBA-TCP는 회원국들 간 무역의 확대와 쿠바와 니카라과의 농업생산 증대를 위해 2010년 이후 이용하게 될 지역전자화폐를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17일 이후 수크레(Sucre)가 ALBA의 공동화폐로 사용되고 있다. ALBA-TCP의 또 다른 내용은 어업부문에 트란살바(Transalba), 방송통신부문에 알바텔(Albatel), 항만설비부문에 Puertos del ALBA, S.A., 니카라과와 베네수엘라의 양국간석유기업인 Alba de Nicaragua S.A.(Albanisa) 등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 기업들은 ALBA의 협력우위 원칙에 따른다는 점에서 초국적기업이 아니라 ‘대국가’(Gran-nacionales)기업으로 지칭되고 있다.

멕시코: PPP에서 Proyecto Mesoamérica로 발전

멕시코는 북중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메소아메리카계획(Proyecto Mesoamérica)을 주도하고 있다. 이 계획은 메소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정치적 협력과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 회원국은 벨리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멕시코,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 10개국이다(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2012).

메소아메리카계획의 전신인 푸에블라-파나마계획(PPP: Plan Puebla Panamá)은 2000년 말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을 순방한 멕시코의 폭스(Vicente Fox Quesada)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후, 2001년 투스틀라 대화·조정 메커니즘(Mecanismo de Diálogo y Concertación)²³ 회담에서 채택되었다. PPP는 “문화적, 윤리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민사회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메소아메리카 지역의 경제발전, 빈곤퇴치, 인적자원 개발, 자연자원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주의 전략”임을 표방했다(Aravena 2009, 34). 초기 회원국은 멕시코 남부·남동부 9개주(푸에블라, 베라크루스, 타바스코, 캄페체, 유카탄, 키타나로, 게레로, 오아하카, 차아파스)와 중미 7개국(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벨리스)이었다.

PPP는 멕시코 남부에서 파나마에 이르는 범중앙아메리카 개발계획을 통해 중국에는 중앙아메리카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만들고자 하는 멕시코 정부의 지역주의 구상이다. 폭스 대통령은 푸에블라에서 파나마까지 세 개의 고속도로와 통신망을 구축하면 중앙아메리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며, 선진국과 초국적기업들에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호소했다(Call 2002). 또한 멕시코 정부는 석유 및 가스 송유관 설비 확충을 통해 에너지 생산을 증대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 PPP 회원국들의 정치적 지지를 구했다. 그 외에도 폭스 정부는 메소아메리카생물학도로(Corredor Biológico Mesoamericano), 미주에너지계획(Plan Energético de las Américas), 중미전기통합체계(Sistema de Integración Eléctrica para los Países de América Central) 등의 구상을 발표하였다(Luna 2002).

폭스 정부가 구상한 제반 구상들은 투자의 부족으로 인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지 못했지만, PPP는 큰 잡음 없이 계속 진전되었다. 2004년 이후 옵서버로 참가하던 콜롬비아는 2006년 10월 PPP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콜롬비아의 PPP 가입으로 파나마와 콜롬비아에 속해있는 다리엔(Darién) 밀림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전 대륙이 하나의 고속도로, 가스관, 송유관, 전기

23) 투스틀라 대화·협력 메커니즘은 1991년 이후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의해 추진된 정치적 대화 포럼이다.

등으로 연결하려는 계획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Zunino 2010). 2006년 12월 멕시코의 칼데론(Felipe Calderón) 정부는 PPP의 새로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이듬해 PPP 강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2007년 정상회담에서 PPP 회원국 정상들은 PPP의 제도적 강화, 중미통합체계(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와의 결합, 회원국 확충 및 개발계획 활성화 등을 결의했다. 2007년 4월 멕시코 캄페체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PPP의 제도적 틀을 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에 합의했다.

2007년 발표된 PPP의 개발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된 것과는 양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미화 450만 달러의 투자액이 포함된 33개 지역개발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 계획에는 중미지역 전기시장 구축과 메소아메리카에너지통합계획(Programa de Integración Energética Mesoamericana), 메소아메리카국제도로망(Red Internacional de carreteras Mesoamericanas), 메소아메리카정보통신망(Autopista Mesoamericana de la Información), 메소아메리카상품무역경로(Mesoamericano de Tránsito Internacional de Mercancías), 메소아메리카전염병예방계획(Programa Mesoamericano de Vigilancia Epidemiológica), 메소아메리카AIDS예방계획(Programa Mesoamericano de Abordaje del VIH-Sida)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메소아메리카 이민통계정보체계,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정,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중앙아메리카정보망과 멕시코남부와 남동부 정보망 등도 추진되었다.

2008년 6월 제10차 특스틀라 대화·조정 메커니즘 정상회담에서는 PPP라는 명칭이 ‘메소아메리카계획’으로 변경되었다. 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PPP의 공고화였다. 참가국 정상들은 메소아메리카 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PPP를 메소아메리카계획으로 개칭할 것을 결의했다. 메소아메리카계획의 기본 방향은 상호보완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통합과 지역발전을 공고화하는 것이다(Zunino 2010). 메소아메리카계획의 목적은 인프라, 상호연결성, 사회발전 등을 통해 메소아메리카 국가에 구체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중미경제통합은행(BCIE: Banco Centroamericano de Integración Económica)을 통해 사회주거발전계획(Programa para el Desarrollo de Vivienda Social)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산호세 협정

(Acuerdo de San José) 기금으로 집행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중미 국가들의 주택부문 발전과 장기적인 주택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금융시장 장려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메소아메리카공공보건체계(Sistema Mesoamericano de Salud Pública)와 메소아메리카환경보전전략(Estrategia Mesoamericana de Sustentabilidad Ambiental) 및 메소아메리카지역정보체계(Sistema Mesoamericano de Información Territorial)의 형성을 위해 지원하고, 태평양·대서양·카리브관광도로(Corredores Viales Pacífico, Atlántico, Turístico del Caribe)와 인도양간도로(Corredores Interoceánicos)의 복원 및 확장에 합의했다. 이는 메소아메리카국제도로망(Red Internacional de Carreteras Mesoamericanas) 계획의 일환이다. 전기에너지와 전기통신 분야에서는 중미의 전기회사(Empresa Propietaria de la Red)를 설립해 전기송신을 위한 메소아메리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리고 메소아메리카정보고속도로(Autopista Mesoamericana de la Información) 계획과 중미광섬유네트워크회사(Empresa Red Centroamericana de Fibras Ópticas)의 설립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렀다(Aravena 2009, 34-37).

메소아메리카계획은 PPP의 심화인 동시에 새로운 정치적, 지정학적 측면을 포함한다. 이 계획은 경제적 측면에서 PPP의 목표를 계승하여 자연자원 추출, 지역 내 자원 수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지속하는 한편, 지정학적 측면에서 메소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PPP가 전기, 전기통신, 수송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할 반면, 메소아메리카계획은 보건, 환경, 자연재해, 주택 등의 사회적 영역까지 확대된 포괄적 계획을 지향한다. 또한 PPP는 안보라는 주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반면, 메소아메리카계획은 마약거래 및 조직범죄에 대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멕시코 정부는 ‘민주적 안보 분야에서 중앙아메리카-멕시코 대화’(Diálogo Centroamérica-México en Materia de Seguridad Democrática)와 ‘미주지역 공공안보를 위한 협약’(Compromisos para la Seguridad Pública en las Américas)을 제안했다. 그 목적은 인간안보 및 제도적 안보를 위협하는 마약거래, 돈세탁, 무기거래 등 인간안보 및 제도적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한편, 멕시코의 칼데론 정부는 메소아메리카 지역의 단일자유무역협정(Tratado de Libre Comercio Único)을 논의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제의했다. 2008년 6월 투스틀라 대화·조정 메커니즘에서 멕시코 정부는 현재 메소아메

리카 지역에 존재하는 자유무역협정들을 단일한 ‘메소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Zunino 2010).

베네수엘라와 멕시코 지역주의 리더십의 주요 특징

200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신’지역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남미지역의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북미지역의 멕시코가 상이한 성격의 지역주의 리더십을 보이며 각기 다른 지역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라질은 1990년대 이후 지역주의 리더십을 확장해오고 있는 반면, 2000년 이후 출현한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의 지역주의 리더십은 2005년 미국 주도의 FTAA가 실패한 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Pizarro(2008, 31-32)는 이와 같은 다양한 지역주의 리더십 현상을 평가하며 라틴아메리카 ‘신’지역주의가 심화되기보다는 분산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또한 Aravena(2009, 12)도 다양한 지역주의들이 과잉 공급된 결과, 지역주의의 정치적 중요성이 부각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구상도 라틴아메리카를 전체적 관점에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역을 ‘다양한 라틴아메리카들’로 분열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라틴아메리카 ‘신’지역주의의 현재적 추세는 포기되거나 되돌리기 힘든 상황에 있다고 평가된다. 최근 지역주의 성장 추세가 세계화, 탈냉전, 유럽연합 등과 같은 새로운 세계정세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Pizarro 2008, 31-32). 또한 2010년 CELAC 창설에서 볼 수 있듯이 브라질, 베네수엘라, 멕시코는 지역주의 리더십 경쟁에 참여하는 동시에 단일한 거대 라틴아메리카 지역기구 건설에서는 협력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다양한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 운동들이 한 방향으로 수렴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Gratius 2012, 3).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의 지역주의 리더십 특징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두 국가 모두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2000년 이후 지역주의 리더십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의 지역주의 형성과정은 주로 정상회담이나 정상외교를 통해 진행되는 정부간주의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역내 회원국들 간 친밀한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지지를 얻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회원국 대통령에 의해 하향식으로 진행되는 정책결정 방식은 여러 정치·사회세력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ALBA가 추진하는 교육, 보건, 의료 사업들은 대중의 논의를 반영하고 공동체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최적의 사회적 생산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복잡한 환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일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다면 ALBA의 변혁적 잠재력은 약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Hart-Landsberg 2009).

두 번째 공통점은 베네수엘라와 멕시코가 공공연히 여러 지역기구들에 중복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MERCOSUR 정회원국이고 UNASUR와 CELAC 회원국이며, 멕시코는 NAFTA와 G-3, CELAC의 회원국이다. 이 외에도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는 CAN 회원국이면서 MERCOSUR의 준회원국이고,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는 ALBA-TCP 회원국이며 UNASUR 회원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의 지역주의 리더십은 경쟁관계와 상호보완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며 개방적 성격의 지역주의 특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 상이한 지역주의 회원국들 간 제3의 공동 프로젝트가 개발될 여지도 있다.²⁴⁾

세 번째 공통점은 베네수엘라와 멕시코 모두 에너지를 '신'지역주의 추진의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에너지부문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의 새로운 '에너지민족주의' 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정치적 재편을 가능하게 하는 지정학적 중요 사안이다. 역내 국가들은 에너지와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석유수출국의 입장에서는 브라질의 바이오연료 생산이 전략적 이익이라기보다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메소아메리카계획에서 에너지 의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고, 베네수엘라는 '석유외교'를 ALBA 추진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의 지역주의 리더십이 보이는 첫 번째 차이점은 지역 패권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멕시코가 주도하는 메소아메리카계획은 북미 지역의 패권국인 미국의 신자유주의 지역발전 전략과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최근 CELAC 가입을 통해 브라질과도 온건한

24)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지리적 인접성, 정치적 이해관계,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 등을 활용해 페트로아메리카(Petroamérica)를 추진할 지역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Petrobrás(Petróleos Brasileños S.A.)와 PDVSA(Petróleos de Venezuela S.A.)의 제휴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남미지역 패권국인 브라질과 경쟁관계에 있는 동시에 CELAC를 통해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지역주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두 번째 차이점은 멕시코가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지역주의 리더십을 추구하는 반면, 베네수엘라는 이념적 정체성과 지역적 정체성에 바탕을 두고 지역주의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라틴아메리카적 정체성’²⁵⁾이 지역주의 운동의 주요 동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추진하는 양자주의적 FTA 협상에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며, 라틴아메리카가 공유하는 문화적 유산, 전통, 음식, 문화, 언어, 종교 등을 활용해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를 추진하는 것이다 (Guardia and Chávez).

세 번째 차이점은 베네수엘라의 지역주의 리더십이 볼리바르주의, 민중주의, 21세기 사회주의 등 급진적 이념에 기반을 두는 반면, 멕시코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지역주의를 주도하고 있다. 멕시코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 함께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면서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Méndez 2012). 베네수엘라와 멕시코가 주도하는 지역주의 리더십의 이념적 차이는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의 공고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²⁶⁾

결론

본 논문은 200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신’지역주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의 지역주의 리더십 형성과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 지역주의 모델이라는 기본 관점과

25) 이러한 점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지역주의는 본질주의보다는 구성주의적 특징을 갖는다. 구성주의에 따르면, 지역은 본질적 속성이나 선천적 특성을 공유하는 실체가 아니라 국가 및 정치엘리트의 정치적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구성물이라 본다(Shin 2009, 129-131).

26) 실제로 2008년 3월 1일 콜롬비아 군대가 에콰도르 영토를 침입함으로써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베네수엘라 간 국경분쟁 및 외교관계 단절이 있었다. 이와 같은 긴장에 대해 미주기구(OAS) 등 미주간지역주의는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대신 리오 그룹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였다(Aravena 2009, 16).

지역주의 리더십에 관한 개념적 논의들을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지역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지역주의와 미주간지역주의라는 역사적 패턴들이 시기별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개괄한 후, 1990년대 미국과 브라질 주도로 진행된 패권적 지역주의의 흐름과 2000년 이후 베네수엘라와 멕시코가 패권적 지역주의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지역주의 리더십을 확립하고 있는지, 그 리더십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된 중간국 및 약소국의 지역주의 리더십이 조성되는 조건들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신'지역주의 리더십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이후 미주대륙 패권국이자 북미지역 패권국인 미국이 더 이상 미주간지역주의를 이끌 의지나 능력을 상실했고, 브라질, 베네수엘라, 멕시코가 그 공백을 메우며 지역주의 리더십을 키워나갔다. 둘째, 미국이 미주간지역주의 추진의 의지나 능력을 상실한 데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브라질과의 리더십 경쟁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브라질은 미국의 FTAA 추진에 대해 양자주의 협상을 거부하고 MERCOSUR를 통한 다자주의 방식을 주장하는 한편 CAN 국가들과 연합하여 대항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9/11 테러 이후 FTAA가 미국 외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남으로써 브라질을 비롯한 베네수엘라, 멕시코가 지역주의 리더십을 발휘할 공간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셋째, 베네수엘라와는 달리 멕시코는 지역 패권국인 미국과 긴밀한 정치·군사적 동맹과 경제적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멕시코가 주도하는 메소아메리카계획은 '독자적' 지역주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넷째, 만일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Comunidad de Estados Latinoamericanos y Caribeños)가 통일된 연합체로서 집단적 협상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라틴아메리카 '신'지역주의는 과거 어떤 시기보다 강력한 힘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브라질, 베네수엘라, 멕시코의 다양한 지역주의 리더십 경쟁은 CELAC 결성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라틴아메리카 '신'지역주의의 강화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베네수엘라, 멕시코의 지역주의 리더십은 형성 중에 있다. 양국이 추진하는 ALBA와 메소아메리카계획은 아직까지 성취한 것보다 약속한 것이 더 많다. 두 지역기구가 많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시행 중에 있으나 그 결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 동안

베네수엘라, 멕시코, 심지어 브라질의 지역주의 리더십에 관해서는 유럽모델과 대비되면서 부정적 전망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ALBA의 지역주의 건설이 베네수엘라의 재정적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석유붐 시기가 종결되면 곧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는 주장이 있다(Hart-Landsberg 2009). 최근 브라질의 지역주의 리더십도 높은 경제성장률과 BRICs 형성과 같은 이 국가의 경제적 위상 강화로 가능했다는 지적이 있다(Gratius 2012, 7). 이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점은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다. 2008년 이후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인프라 구축과 사회개발프로젝트에 32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고, 베네수엘라는 차관 상환을 위해 매일 20만 배럴의 원유를 중국에 제공했다. 베네수엘라는 또한 러시아와도 수백억 달러의 신규 차관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주의 리더십의 발전은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정치적 요인, 정책결정자의 의지, 지역적 정체성 등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참고문헌

- Ameliach, N. José M.(2012), “La comunidad de estados latinoamericanos y caribeños,” <http://www.aporrea.org/internacionales/a145161.html>
- Aravena, Francisco Rojas(2009), “Integración en América Latina: acciones y omisiones; conflictos y cooperación,” *IV Informe del Secretario General de FLACSO*, http://www.flacso.org/fileadmin/usuarios/documentos/Secretaria_General/IV-InformeSG.pdf
- Astorga Eglys, Martín, “Los proyectos de integración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omo alternativa al ALCA,” pp. 1-6, http://www.nodo50.org/cubasisgloXXI/congreso06/conf3_martin.pdf
- Briceño Ruiz, José(2006), “Regionalismo estratégico e interregionalismo en las relaciones externas del Mercosur,” *Revista Aportes para la Integración Latinoamericana*, Vol. 12, No. 15, diciembre, pp. 28-42, http://www.iil.org.ar/revistas/Numero15/material/PDF/r15_estudios_jose_bricenio.pdf
- Byun, Chang-Ku(2008), “Regionalism and the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Evaluation and Prospect,” *Korean Journal of Northeast Asia*, Vol. 49, pp. 26-47.
- Call, Wendy(2002), “Plan Puebla-Panamá: ¿Trato hecho o conflicto emergente?,” www.americaspolicy.org/pdf/articles/0204ppp-esp.pdf
- Caporaso, James A.(1987), “Enfoques teóricos sobre la cooperación internacional: el caso de América Latina,” in Heraldo Muñoz Valenzuela y Francisco Orrego Vicuña(comps.), *La cooperación regional en América Latina: Diagnóstico y proyecciones futuras*,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Universidad de Chile, pp. 27-62.
- Cason, Jeffery W.(2011),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gration: The Experience of Mercosu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heong, In-Kyo and Ki-Su Kwon, “The Relationship of United States with MERCOSUR in FTAA,”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Vol. 5, No. 2, pp. 29-56.
- Chumbiray Baldera, Selena Ma.(2008), “La influencia de la política exterior en el proceso de integración en América del Sur: la UNASUR ¿otro proyecto más?,” pp. 1-4, <http://www.mundopolitico.cl/3-2008/chumbiray-10.pdf>
- Farrell, Mary(2005), “The Global Politics of Regionalism: An Introduction,” in Mary Farrell, Björn Hettne and Luk Van Langenhove(eds.), *Global Politics of Regionalism: Theory and Practice*, London · Ann Arbor, Mi: Pluto Press, pp. 1-17.
- González Santamaría, Abel Enrique(2008), “Las principales tesis de Fidel Castro sobre la integración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marzo, pp. 1-16, http://www.isri.cu/publicaciones/articulos/2008/boletin_0508.pdf

- Gratius, Susanne(2012), "El auge del regionalismo latinoamericano: ¿Más de lo mismo?," Fundación ideas, marzo, Conferencia 'Progreso Latinoamericano,' pp. 1-29, http://www.fundacionideas.es/sites/default/files/pdf/DD-El_auge_del_regionalismo_latinoamericano-I.pdf
- Grugel, Jean(2009), "New Regionalism, New Rights? Latin American Regionalism as an Opportunity Structure for Civic Activism," *Documento de Trabajo*, No. 19, FLACSO/Argentina, abril, pp. 1-20, <http://rrii.flacso.org.ar/web/wp-content/uploads/2010/10/doc19.pdf>
- Guardia Rolando, Inés and Alejandra Chávez Ramírez, "¿Integración regional o estado nación? Quimeras en América Latina," http://halshs.archives-ouvertes.fr/docs/00/10/33/73/PDF/Guardia_y_Chavez.pdf
- Ha, Sang-Sub(2012), "Miju Daeryuk Energy Tonghabkwa Jiyeok Tonghabui Mirae(Energy Integration and Perspective of Regional Integration in the Americas)," *Jiyeok Tonghabui Gukje Jongchi Gyeongje*(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 Integration), Minerva Jongchi Hakhoi(Minerva Political Association), Seoul: Ingansarang, pp. 97-142.
- Hettne, Björn, Andrés Inotai, Osvaldo Sunkel(eds.)(1999), *Globalism and the New Regionalism*,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Helsinki: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http://books.google.co.kr/books?hl=ko&lr=&id=Cdq2SouBwtwC&oi=fnd&pg=PA1&dq=new+regionalism&ots=Wy9pRSG3AZ&sig=paJrJ4W0POmqv6hkHxMGXufzGFY#v=onepage&q&f=false>
- Jo, Hee-Moon(2010), "Implication of MERCOSUR-SICA FTA in Brazil's Energy Security Diplomacy," *Latin American Affairs*, Vol. 29, No. 1, pp. 367-398.
- Kim, Ki-Hyun(2003), "El cambio político y socioeconómico de Venezuela visto a través del surgimiento y la crisis del gobierno de Hugo Chávez: el fin del excepcionalismo?,"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16, No. 11, pp. 311-347.
- _____ (2008), "La diplomacia energética de Chávez y América Latina,"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1, No. 1, pp. 5-41.
- Kim, Min-Hyung(2012), "Why Does a Small Power Lead? ASEAN Leadership in Asia-Pacific Regionalism," *Pacific Focus*, Vol. XX. 27, No. 1, April, pp. 111-134.
- Kim, You-En(2006), "Characteristics of New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rder and Korea," *Journal of Political Information Studies*, Vol. 9, No. 2, pp. 145-162.
- Klein, Wolfram F.(2000), *El Mercosur: Empresarios y sindicatos frente a los desafíos del proceso de integración*, Venezuela: Nueva Sociedad.
- Kwak, Jae-Sung(2000), "MERCOSURui Hyonhwanggwa Jonmang(The Present and Future of MERCOSUR: Integration toward New Opportunity)," *Segejijyeok Yeongu*(Journal of World Area Studies), Vol. 14, pp. 103-125.
- _____ (2001), "Comparisons of Regionalism Over the World and Korea's

- Choice; Deepening Process and Widening Efforts of Mercosur,”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y*, Vol. 8, No. 22, pp. 83-127.
- Lee, Nae-Yeong(2004), “Economic Integration of Latin America and Free Trade of the Americas,”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17, No. 1, pp. 197-232.
- Luna, Daniel(2002), “Plan Puebla-Panama: Development or Neocolonialism?,” www.nadir.org/nadir/initiativ/agp/free/ftaa/noticias_nl/planpuebla.html
- Malamud, Carlos(2005), “Los frenos a la integración regional en América,” *Árrea de América Latina*, 4 de noviembre, pp. 1-5, http://www.realinstitutoelcano.org/analisis/838/838_Malamud.pdf
- Méndez, Norberto R.(2012), “MERCOSUR-UNASUR-ALBA-CELAC: ¿sellos de goma o realidades con peso propio?,” *El gran otro*, <http://elgranotro.com/mercotur-unasur-alba-celac-sellos-de-goma-o-realidades-con-peso-propio>
- Moon, Don(2006), “New Patterns of Regionalism: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f the FTA,” *World Politics*, Vol. 27, No. 2, pp. 25-60.
- _____ (2007), “Changes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and Korea: Multilateralism, Regionalism, Bilateralism, and Korea,” *Korean Political Studies*, Vol. 16, No. 2, pp. 165-190.
- Mun, Nam-Gwon(2004), “History and Prospect of America’s Economic Integration,”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17, No. 1, pp. 335-381.
- Park, Sun-Hee(2008), “European Union’s External Relations: Reemergence of Interregionalism After the 1990s,”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Vol. 12, No. 4, pp. 219-248.
- Pizarro, Roberto(2008), “El difícil camino de la integración regional,” *Nueva Sociedad*, Vol. 214, marzo-abril, pp. 24-34. http://www.nuso.org/upload/articulos/3504_1.pdf
- Robalino, María Imelda, “Integración energética en América Latina: La faja petrolífera del Orinoco en Venezuela,” http://www.flascoandes.org/web/imagesFTP/11471.PROYECTO_DE_TESIS.pdf
- Rosas, María Cristina(1996), *México ante los procesos de regionalización económica en el mundo*,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Económicas, México: UNAM.
- Sánchez M., Alfredo(2005), “La integración regional de América Latina: sus éxitos y fracasos,” pp. 223-258, <http://www.ajlas.org/v2006/paper/2005vol18no107.pdf>
- Seo, Kyeong-Tae(2000), “The Conflict between MERCOSUR and NAFTA in Constructing the FTAA,”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13, No. 1, pp. 245-263.
- Shin, Yoon-Hwan(2009), “Regionalism in Southeast Asia: Implications for East

- Asian Community Building,”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56, pp. 107-137.
- Son, Hye-Hyeon(2010), “Regional Hegemon and Regional Intergration: Focused on Brazil Central America Energy Intergration,” *Latin American Affairs*, Vol. 29, No. 1, pp. 309-337.
- Song, Eun-Hee(2006), “Regionalism on the East-Asian Region and Natural Economic Territories,” *Korean Journal of Northeast Asia*, Vol. 38, pp. 317-334.
- Soria Murillo, Víctor(2005), *Integración económica y social de las Américas: Una evaluación del libre comercio*, México: INTAM, UAM, Itaca.
- Vielma Mora, José Gregorio, “Una propuesta venezolana de integración de los pueblos Latinoamericanos,” pp. 1-7, http://www.seniat.gov.ve/pls/portal/docs/PAGE/SENIAT_CA/00NOTICIAS/IMAGES/alba2.PDF
- Yim, Ban-Seok and Eun-Young Cho, “Regionalization, Regionalism, and the Integration of East Asian Economy,” *Korean Journal of Northeast Asia*, Vol. 35, No. 1, pp. 215-237.

Article Received: 2012. 07. 05

Accepted: 2012. 08. 02